

진안군, 축산업 허가제 확대

사육시설 면적 50㎡초과 소규모 농가도 해당

진안군은 축산업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의 허가 대상 규모를 준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서 소규모 이상의 농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사육하는 농가는 소규모일지라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안군 전체 가축사육농가 512호 중에서 17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

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차량진입차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 농가의 의무교육은 신규자는 24시간, 사육 경력 3년 미만인 자는 12시간, 사육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8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2017년 2월 22일까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규모 이상 농가가 신규 진입하는 경우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라 농가가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 개별 안내문 발송 및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기자



진안 마을축제 연중 열린다

올해부터

진안군 마을축제가 그동안 여름 한철 각 마을에서 열린던 축제에서 마을별로 연중 축제를 여는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마을과 마을을 엮어 여러 개의 마을이 연합하여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의 자원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주민과 도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1사촌 및 자매결연지 등 도농 교류의 장을 열어 농특산물 판매와 각종 농촌 체험행사가 각 마을로 연계되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된다.

특히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수년간의 마을민들기 사업으로 연간 수만명이 다녀가는 진안군 마을민들기의 모델로 일구어 낸 진안군 원연정마을 신애숙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직위원회의 출범으로 시동을 건 제9회 진안군마을축제는 여름 휴가철에 마을내에서 소박한 마을잔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주민을 기본으로 하고 출향인 1사촌 및 자매결연지 주민, 마을민들기에 관심 있는 자, 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별 전통행사와 연계하여 연중축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김정배 전라산협과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제9회 진안군마을축제로 인해 그동안 여름에 집중되어 각 마을에서 열리던 마을축제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던 출향인 예비 귀농귀촌인, 도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는 새로운 축제 운영방식의 시도도 마을과 행정, 단체 등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마을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민기자

교육플러스

장수군, 천마재배교육 실시

장수군(군수 최홍득)은 지난 30일 장계농협 회의실에서 관내 천마재배 30여 농가를 대상으로 천마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김창수 연구사는 노지재배와 시설재배에 따른 일반 재배농가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사진 자료와 실제 시체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천마산업의 전망 및 연구방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돼 농가들의 호응을 받았다.

조길성(장계면 장계리) 농가는 "장수군에 천마농가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장수군, 이동학대 예방교육

장수군은 31일 오후 3시 한국농업연구소에서 장수교육지원청 관계자, 장수경찰서 관계자, 장수보건의료원 관계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 이동학대 신고의무자 1백20여명을 대상으로 이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이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대 피해이동 발견 및 의심 시 신속한 신고로 이동학대 피해를 감소하고 긴급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조자영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동학대의 이해, 신고의무자의 역할, 이동학대법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이동학대 발견 및 의심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아동 보호 및 피해이동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무주군, 빈집 정비 임대사업 추진

노인·귀농·귀촌인 등 당당 최대 1000만원 지원

무주군은 지역에 방치돼 있는 빈집을 정비해 주변 시세 반값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은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도비 50%, 군비 50%)해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저소득층과 귀농

· 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등에 5년 간 임대하는 것으로, 동 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무주읍 양정마을과 서면마을에 소재한 빈집 2동을 리모델링했으며 부산에서 귀촌한 신정민 씨 가족이 지난 3월 27일에, 서울에서 귀촌한 황재현 씨가 3월 31일 입주를 마쳤다.

군 민원봉사과 김한수 건축담당은 "방치돼 있던 빈집을 정리함으로써 마을환경이 쾌적해지는 것은 물론,

집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과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 수량과 재원을 확보하고 홍보를 확대해 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2015년부터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에는 빈집 1동을 리모델링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완주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30일까지 한 달간... 수거장려금 인상 지급

완주군은 봄철 영농 준비기를 맞아 농경지 등에 버려진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병류 등) 집중수거로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 및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달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영농자재 집중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차원으로 기존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A등급 1kg당 50원에서 90원으로, B등급은 1kg당 40원에서 70원으로, C등급은 1kg당 30원에서 50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된 수거·처리실적

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연중 지급한다.

이월러 농약병류는 유리농약병 1kg당 150원, 농약병지 1kg당 270원, 플라스틱병 1kg당 800원을 수거보상금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지급한다.

영농폐기물은 개인이나 마을단체, 유관단체별로 농경지에서 수거해 읍면 또는 마을 간이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재활용 처리하게 된다.

김영수 환경위생과장은 "집중수거 기간 동안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이 적극 수거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완주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무주 농어촌소득지원금 상반기 10억 3천만원 지원

무주군은 2016년 농어촌소득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금은 19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37농가에 10억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가 돼 있는 농업인 중 농촌지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및 전통산업 실천농업인, 고소득 소득원 개발 및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업인 농어촌소득지원금 지원으로 지원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등 군은 읍면정을 비롯해 대출기관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군정조정위원회까지 3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업인은 3천만 원, 영농조합법인은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연리 1.5%로 이용할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군 이두명 담당은 "기금이 농업소득 원 발굴과 육성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홍보 주력

무주군은 정부 3.0 7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지난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출산지원서비스를 단 한번의 통합지원서 작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 과정에서 서비스 항목이 누락되는 것을 막고 생애주기 별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출생아 주민등록(예정)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문의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320-2243, 각 읍면사무소 민원복지 담당)

군 민원봉사과 임정희 민원 담당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임신 전부터 안내하는 임신 출산서비스 사전안내 서비스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이라며 "통합처리 방침을 마련한 군은 앞으로 출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내와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환경정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이 봄맞이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비에 나섰다.

무궁화테마식물원은 그라비올라, 네마탄, 베틀레임 외 48종을 식재해 한껏 화사한 색깔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다.

무궁화오토캠핑장에는 나라꽃 무궁화 700주를 식재하여 여름철 아름다운 무궁화 만개해 캠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산자연휴양림에는 가로 경관향상을 위하여 플랫폼라스와 법면에 펜지, 페추나, 꽃잔디, 사철나무 등을 식재하여 환경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산자연휴양림 관계자는 "3월부터 고산자연휴양림 및 문화공원 내에 있는 무궁화 및 조경수 전지·전정을 비롯해 시비, 제초 작업, 초화류 식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이종복기자

진안군,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진안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수한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2016년 진안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마이산, 구봉산, 백운동계곡, 운일만안일출 등 주요명소와 원연정 꽃잔디축제, 동향 수박축제 등 각종 축제, 지역특산품인 인삼, 홍삼 등을 테마로한 자유 작품이며, 1인당 4점 이내로 참여 가능하다.

사진공모전에는 금상 1명에 상금 200만 원, 은상 2점에 상금 각 100만 원, 동상 3명에 상금 각 50만 원 등 총 81명에 대해 1,3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공모전은 9월 22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받고, 시상 작품에 대해서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민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행 정박산업과
063-430-2951